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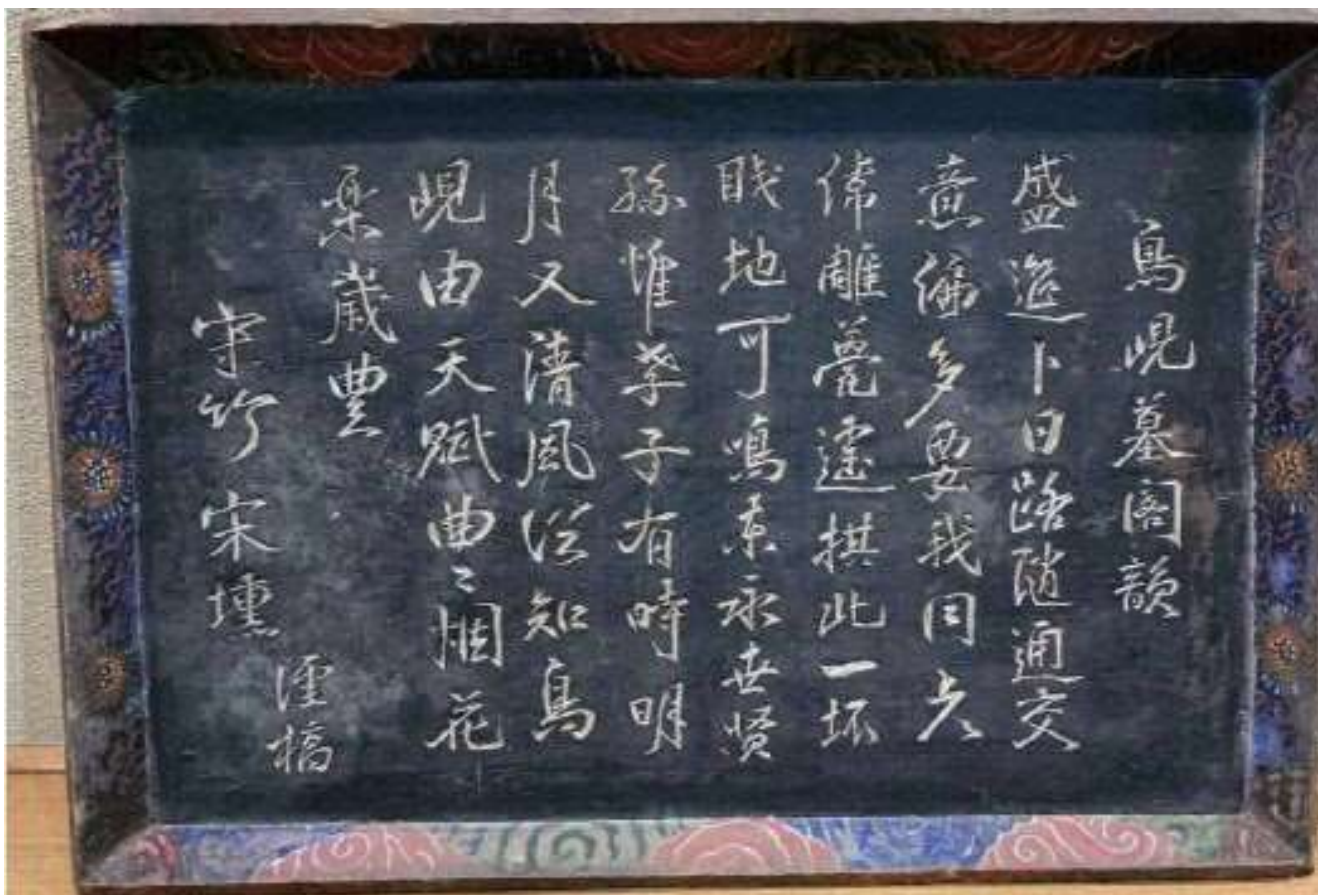
# 담양학교 설립자 송훈 '시판', 日서 돌아온다

일본서 '조현묘각운' 시판 기증식  
김강원 대표, 직접 기증의사 전해

등록 2024-06-19 오후 5:11:02  
수정 2024-06-19 오후 5:11:02  
이윤정 기자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송진우(1890~1945)의 부친이자 담양학교의 설립자 송훈(1862~1926)이 쓴 시판(시문을 써넣은 현판)이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6월 19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일본사무소에서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 시판의 기증식을 진행했다.



'조현묘각운' 시판(사진=국가유산청).

이번에 기증받은 '조현묘각운' 시판에는 송훈이 전남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에 있는 옛 지명인 '조현'에 '묘각'(묘 옆에 제사 등을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을 기념해 후손이 번창하길 축원하며 읊은 칠언율시가 적혀 있다. 바탕판과 테두리를 갖춘 전형적인 조선

후기 현판이다. 좌우 테두리에는 국화무늬를 그렸으며, 상하 테두리에는 기하학적인 구름 문양을 배치했다.

시문의 끝에 적힌 '수죽 송훈이 삼가 쓰다(守竹宋壘謹稿)'라는 내용을 통해 작자는 '수죽'이라는 호를 쓰는 송훈임을 알 수 있다. '신평송씨대동보'에서 송진우의 부친 송훈의 호가 수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하 송진우 평전'(1990)에 따르면 송훈은 신학문 수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사재를 털어 신식 학교인 담양학교를 설립했다. 아들 송진우 역시 담양군 창평에 있는 영학숙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등 선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현묘각운' 시판은 송훈이 담양군 '조현' 지역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증은 시판 소장자이자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 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원 대표가 지난해 국외재단으로 직접 연락해 기증 의사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2022년에도 일본의 유통 시장에 나온 한국 문화유산인 '백자청화김경은묘지'와 '백자철화이성립묘지'를 발견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조건 없이 국내에 기증한 바 있다.